

		<b>보도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8. 22.(수) / 총 3매(본문1)
담당 부서	KIND 전략기획본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실장 고준석, 팀장 박종원, 차장 윤채린</li> <li>• ☎ (02) 6746-7355</li> </ul>
보도일시		2018년 8월 23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KIND-KOTRA 양해각서 (MOU) 체결

### 해외인프라공사(KIND), 우리기업의 해외 PPP 사업 진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와 협력 하기로

- KIND(사장 허경구)는 KOTRA(사장 권평오)와 우리기업의 해외 PPP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고 밝혔다.
  - \* KIND (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&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, 한국 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)
  - \* KOTRA (Korea Trade-Investment Promotion Agency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)
- 이날 양해각서는 코트라 사옥에서 허경구 KIND 사장과 권평오 KOTRA 사장이 서명 하였으며,
- 양기관은 해외 PPP시장 및 프로젝트 정보공유, 해외정부 및 발주처 교섭 등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공동협력하기로 하였다.
- 허경구 KIND 사장은 KIND 창립행사(2018.6.27.)이후 국내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KOTRA와의 협력은 그 첫걸음으로 향후 해외 수주를 위한 Team, KOREA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.

## 1. 추진배경 및 경위

- ◆ 투자개발형(PPP)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방식에 익숙한 우리기업은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PPP 진출에 소극적
- ⇒ PPP 사업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우리 기업의 PPP 역량 보완·강화

□ (추진 배경) 신흥국을 중심으로 민·관 협동(PPP)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는 등 해외 건설시장이 급격히 변화

\*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 규모(WB): '05년 403억불 → '15년 1,199억불(약 3배)

○ 우리 기업은 PPP 진출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·역량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 저조\*

\* 세계 PPP 시장에서 우리기업(14억불)이 차지하는 비중: 1.15%('15년)

○ 반면 중국, 일본 등 경쟁국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수주 지원 정책('국가대항전')을 바탕으로 PPP시장에 활발히 진출중

\* 특히, 프랑스(Egis), 카타르(Nebras Power), 일본(JOIN) 등 일부 국가는 PPP 사업 지원기구를 설립하여 발 빠르게 대응 중

⇒ 우리기업의 해외 PPP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정책을 연계·확대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기구 설립

□ (추진 경위)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원기구 설립 의결('17.1.4), 세부 설립 및 운영방안 논의('18.1월)

○ (법적 근거 마련)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지원공사 설립 근거 마련

\* 개정안 발의(전현희의원, '17.6월) → 상임위 및 본회의의결('17.9월) → 국무회의 및 공포('17.10월) → 시행령 개정안 차관·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('18.4.25)

## 2. 지원공사 주요 역할

- (주요 업무) G2G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부터 사업 개발지원, 금융 지원에 이르는 PPP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·전문적으로 지원
  - (사업 발굴\*) 고위급 수주지원 참여, 상대국 인프라 중장기계획 및 정책에 대한 기술 검토를 통해 사업 수요 선제적 발굴·제안
    -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·분석하여 수주에 활용
    - \* G2G, 자체 발굴, 민간 제안사업 등을 토대로 대상사업 발굴(단기~중장기)
  - (개발 지원) 금융, 법률, 인프라 엔지니어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비·본타당성조사 비용 지원
    -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, 정보력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 설계, 외국 정부 및 발주처와의 사업조건 협상 등도 지원
    - \* KIND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 후 국토부 위탁사업 (F/S 등)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개발 지원
  - (금융지원) 대출 주선, 정책성 펀드 또는 글로벌 국부펀드 투자 연계 등을 통해 민간의 재원 조달 부담 완화
    - 필요시 지원공사의 공신력을 활용, 민간보다 낮은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성 보장을 위한 투자 실시
    - \* KIND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이내에서 차입·채권발행 가능

